

복막 투석 환자에서 발생한 경화성 피막성 복막염의 임상적 분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범석, 김현진, 김형중, 최훈영, 박형천, 감신욱, 최규현, 하성규, 한대석, 이호영

경화성 피막성 복막염 (Sclerosing encapsulating peritonitis, SEP)은 섬유화로 두꺼워진 복막이 장폐쇄를 일으키는 복막 투석의 합병증 중 하나이다. SEP는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발생률이 낮고 질환 발현까지 긴 투석기간을 필요로 하여 임상양상에 대한 분석은 드문 실정이다. 이에 저자 등은 SEP의 발생빈도, 위험인자, 임상양상, 진단, 치료 및 예후 등을 알아보려고 연세의료원에서 1981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복막투석을 3개월 이상 시행 받은 2078명의 환자 중 SEP로 진단된 12명에 대해 후향적 연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SEP의 유병률은 0.58% (12/2078)이었으며, 1000 patient year 당 평균 발생률은 1.0 ± 2.2 (0-7.4)이었다.
2. SEP 환자군의 평균연령은 46.1 ± 7.4 세, 남녀비는 5:7, 평균 복막투석기간은 97.6 ± 29.0 개월이었으며, 11명 (91.6%)은 84개월 이상의 투석기간을 나타내었다.
3. SEP 진단 당시 도관제거의 이유로는 복막염이 8명 (66.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초여과 부전 2명, 출구감염 및 투석액 누출 각 1명의 순이었다.
4. 베타수용체차단제는 11명의 환자에서 사용되었으며, 평균사용기간은 84.1 ± 36.5 개월이었다.
5. 진단 당시 임상증세는 복통 5명, 오심/구토 7명, 경구섭취 불량 4명 등이었고, 복수는 10명에서 관찰되었다. 임상 및 방사선학적 검사로 10명이 진단되었으며, 수술적 진단을 받은 환자는 2명이었다.
6. TPN을 포함한 보존적 치료를 받은 10명 중 2명이 사망하였으며, 수술적 치료를 받은 2명 중 1명이 사망하였다. 전체 사망률은 25.0%이었다.

결론적으로 복막투석에 합병하는 SEP는 빈도는 낮으나, 치료에 대한 예후는 매우 불량한 질환으로, 장기간 투석을 시행 받는 환자에서 주로 호발한다. SEP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해 장기간 복막 투석을 시행 받는 환자의 임상적 소견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